

‘잔치’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에스더서 연구

김주원¹⁾

A Study on ‘Banquet’ Motif in the Book of Esther

Ju-won Kim¹⁾

요 약

히브리어 <미쉬테> 곧 잔치가 구약에 총 46번 나온다. 그 중 에스더서에서만 무려 20번이나 나온다. 특히 이 잔치는 주로 두 번씩, 짝(couple)으로 등장한다. 에스더서에 주요한 잔치가 3묶음(set) 나오는데 모두 2번씩 연달아 묘사된다. 책 전체 10장 중에 1장에 2번, 5-7장에 2번, 그리고 9장에 2번 잔치가 열린다. 그밖에 2장과 8장에서 각각 1번씩 잔치가 등장한다. 모세오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에스더서에서 처음 알려진 부림절은 9장에 가면 2일간 지키도록 제정된다. 즉 2일 동안 잔치를 연다. 따라서 이 틀을 따라 책이 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주요한 잔치들이 2번씩 연달아 열리기도 했지만, 저자는 페르시아에서 잔치를 하면 으레 두 번씩 한다는 정보를 고의로 주는 듯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로기에 가서야 만들어진 절기 부림절을 2일간 지키는 의식, 곧 2번의 잔치를 하는 절기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따라서 에스더서의 연구는 ‘잔치’ 모티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확하다.

핵심어: 잔치, 부림절, 에스더, 아하수에로, 섭리

Abstract

‘Banquet’ appears 46 times in the Old Testament. Among them, it comes out as many as 20 times in the book of Esther. In particular, this banquet usually appears as a couple. There are three major banquets in this book, all of which are described as a couple. Out of 10 chapters, these banquets are held twice in ch. 1, in ch. 5-7, and in ch. 9. The first known Purim, which is not mentioned in the Pentateuch, is established to be observed for two days in ch. 9. In other words, a banquet is held for two day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book was organized along the ‘two-day banquet’ framework. In fact, major parties were held twice, but the author seems to be deliberately giving information that festivals in Persia are held twice. In doing so, readers are naturally prepared to accept the two-day celebration of the Purim, which was first made during the period of captivity.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research of this book cannot be done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banquet’ motif.

Keywords: Banquet, Purim, Esther, Ahasuerus, Providence

Received (April 3, 2020), Review Result(May 29, 2020)

Accepted(June 16, 2020), Published(June 30, 2020)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wangshin University, 36, Yangsantaekjiso-ro, Buk-gu, Gwangju, Korea.

E-mail: kj-praiser@daum.net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 2020 HSST

1. 서론

에스더라는 책명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 <에스테르>에서 기인한 것이다. <에스테르> 이름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쉬타르라는 바빌로니아의 여신에서 기인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스더서의 두 왕비 이름이 역사에 나타나지 않은 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왕실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쉬타르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며, 와스디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등장인물과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부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실제 인명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 >안에 한글 음역으로 표기한다.

저자를 밝히기 어려우나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5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이다.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 7년, 12년이 각각 언급되어 있다. 아하수에로 왕 통치(486-465 BC) 즈음에 공자(551-479 BC)가 중국에 있었고, 수학자 피타고라스(582-497 BC), 역사가 헤로도투스(480-420 BC), 철학자 소크라테스(470-399 BC)가 그리스에 있었으며, 고대 올림픽이 이미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1].

<미쉬테>가 구약에서 총 46회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무려 20회가 에스더서에서 발견된다(1:3, 5, 9; 2:18[*2]; 5:4, 5, 6, 8, 12, 14; 6:14; 7:2, 7, 8; 8:17; 9:17, 18, 19, 22). 이는 에스더서에서 '잔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잔치' 모티프에 의한 에스더서 구조는 다음과 같다[1]. 이 구조에서 왕비가 부녀들을 위해 베푼 잔치(1:9)가 생략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A1 장수, 귀족, 고관들을 위한 왕의 잔치(1:2-4)
 - B1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왕의 잔치(1:5-8)
 - C1 에스더의 왕후 즉위를 축하하는 잔치(2:18)
 - D1 왕과 하만을 위하여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5:1-8)
 - X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실록을 읽은 왕(6:1-3)
 - D2 왕과 하만을 위하여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7:1-9)
 - C2 모르드개의 이인자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8:17)
 - A2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부림절 첫째 날 잔치(9:17, 19)
 - B2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의 부림절 둘째 날 잔치(9:18)

2. 본문 연구

본문 연구는 위의 구조에 기초하여 '잔치'가 언급된 본문을 중심으로 고찰될 것이다.

2.1 A1-B1 왕의 잔치와 와스디의 폐위(1:1-22)

인도에서 구스(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 3년(483 BC) 수산 도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20개의 총독 관할 구역(satrapies)으로 이루어져 있다[2]. 그러나 역사성의 의심이 불필요한 것은 에스터서의 127도는 총독에게 예속된 방백들이 다스리는 행정 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 고대 엘람의 수도인 수산을 포함하여 엘람의 도시들 대부분을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668-627 BC)이 파괴하였다. 후에 아시리아가 폐망하자 엘람은 메대에 흡수되었고, 메대가 고레스에 의해 점령된 후 엘람은 페르시아 제국에 통합되었다. 수산은 겨울에도 따뜻해서 페르시아 왕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곤 했다[4][5][6]. 왕이 수산에서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므로 바사(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고관들이 모였다. 왕이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부와 그의 권세의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최고 각료 회의를 열었다[2].

1차 잔치가 끝나자 왕은 7일 동안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2차 잔치를 베풀었다. 흰색, 초록색, 푸른색 휘장(각종 화려한 장식)을 자주색 끈으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았다.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화반석, 대리석, 진주석, 흑석(각종 호화스러운 돌)이 깔린 바닥에 놓았다. 금잔으로 술을 마셨으며 어주가 풍성하였다. 그리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시도록 왕이 명령하여 억지로 마시는 사람이 없었다. 페르시아 잔치에서 왕이 술을 마시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는 규례에 비추어 볼 때, 아이러니한 것은 기존의 법을 바꾸기 위해 당일에 새로운 법을 또 선포해야 하는 대제국의 번거로움이 연출되고 있다[3]. 에스터서에서 '규례/법' <다트>가 모두 20번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1:8, 13, 15, 19; 2:8, 12; 3:8[*2], 14, 15; 4:3, 8, 11, 16; 8:13, 14, 17; 9:1, 13, 14).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아메스트리스(Amestris)였으며, 왕후는 일곱 고위 가문에서만 선정되었다[2].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에스터서의 역사성을 훼손시키지는 못한다. 라이트(Wright)는 다리우스와 아하수에로 왕이 일곱 가문 외에 여인과 결혼하였으며 아메스트리스 또한 이 일곱 가문에 속하지 않은 오타네스의 딸이었다고 설명한다[7]. 나아가서 라이트는 아메스트리스와 와스디가 동일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음운상의 수정을 제안한다[4]. 헤로도투스의 기록이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

만 절대적 도움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기(史記)가 그러하듯이 그 진정성은 의구심과 항상 동반되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페르시아의 왕은 그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 역사도 얼마든지 바꾸어 기록하게 할 수 있는 - 절대 권력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브레네만(Breneman)은 왕후가 주최한 잔치 배설이 페르시아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닌 점을 지적하면서 왕과 왕비의 결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한다[8].

2차 잔치의 7일째에 왕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자 일곱 내시에게 명하여 와스디로 하여금 왕 앞에 나와서 그녀의 미모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게 하였다. 그러나 와스디가 이를 거절하였고 왕은 매우 분노하였다. 와스디의 태도로 인하여 왕이 관습에 정통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에 일곱 고위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므무간이 대답하였다. “와스디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이 제국 전체에 알려지면 모든 여자가 남편들을 업신여길 것이며, 오늘 당장 귀부인들이 고관들을 업신여기고 그 남편들은 분노하여 가정 파탄이 생길 것입니다. 와스디를 폐위하시고 이를 법전에 기록하여 변개하지 못하게 하시며 새 왕후를 맞이하십시오. 왕의 칙령이 내려지면 모든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1:19부터 와스디는 왕후라고 불리지 않는다(1:19; 2:1, 4, 17). 왕과 고관들이 므무간의 말을 좋게 여겨 왕이 그대로 시행하였다. 관습에 정통한 지혜자들이 관습(법)에 의해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이 자신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아이러니와 유머가 엿보인다[9]. 그러나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가! 왕과 왕비 사이에 벌어진 일을 왕 스스로가 온 나라에 법으로 공포하여 알렸으며 더 나아가 이 법을 누구도 결코 바꾸지 못하게 했더니 말이다. 왕은 자기 집안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제국 내의 가정들을 통제하려 든다. 그것도 제국의 법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우스꽝스럽고 어이가 없다. 페르시아의 조서가 고쳐질 수 없는 사례는 다니엘 6:8, 12, 15에서도 나타난다.

2.2 C1 에스더의 왕후 즉위와 축하하는 잔치(2:1-4, 8-18)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자 왕은 와스디에게 행한 일을 후회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요구하였다. “새 왕후를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제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산에 모아들여 내시 헤개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고 왕께서 직접 선발하십시오.” 왕이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다. 테르모필레에서 힘겨운 승리를 얻었지만, 살라미스 및 플라테아에서 참패를 한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로 돌아와 남은 생애 동안 내내 향락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2]. 왕이 하는 국사는 기껏 해봐야 신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결정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왕의 태도는 제국 내에서 하만의 음모나 모르드개의 방어를 충분히 가능하게 했다.

칙령이 내려지자 많은 처녀가 수산에 모여들었다.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400명의 처녀가 모여들었다[10].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와서 궁녀를 담당하는 내시 헤개의 관리 아래 들어갔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후 수산에 줄곧 머물렀다[2]. 에스더가 헤개의 눈에 들었고 그에게서 호의<헤세드>를 얻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화장품과 음식을 주었으며 에스더와 그녀의 일곱 시녀를 하렘(건물로서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다. 개역개정성경은 2:9을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곱 궁녀”라고 번역하였으나, MT(Masoretic Text)에는 ‘으레’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 이 번역은 에스더가 헤개로부터 호의를 얻었다는 본문의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11].

모르드개의 지시에 따라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 본문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3장 이후부터 하만과 대적들이 대대적인 유다 민족 제거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에스더 당시에 이미 반유대주의 감정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바빌로니아에서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지금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 물론 다니엘의 여건이 훨씬 나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어려운 결단을 했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내러티브는 일종의 지연 기법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고 있는 것 같다[12]. 이 이유가 옳다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없었을 것이며 모르드개 역시 에스더가 왕비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르드개는 하렘 뜰을 오가면서 에스더를 늘 보살폈다.

처녀들이 규례에 따라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단장한 후에 저녁이면 왕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아침에는 다른 하렘으로 돌아와 후궁을 담당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후궁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다시는 나아갈 수 없었다. 처녀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으나 에스더는 내시 헤개가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었다. 아하수에로 왕 7년(479 BC) 10월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녀가 왕에게서 호감과 호의<헤세드>를 얻어서 마침내 왕후가 되었다. MT에서 ‘왕궁’이 두 개의 단어로 묘사된다. <베트 함멜레크>(2:8, 9, 13; 4:13; 5:1[*2]; 6:4; 9:4)와 <베트 함말쿠트>(1:9; 2:16; 5:1)이다. 김윤희는 2장에서 ‘왕궁’을 묘사하기 위하여 두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다른 처녀들이 나아간 곳이 <베트 함멜레크>인 반면 에스더가 나아간 곳은 <베트 함말쿠트>로서 1장에서 와스디가 잔치를 벌인 장소인 것을 지적한다. 에스더서 저자는 용어들을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에스더가 와스디를 이미 대신할 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1].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각 도의 세금을 감면해 주며 선물들을 주었다.

2.3 D1 왕과 하만을 위하여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5:1-8)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 안뜰에 서 있었다. 김윤희는 에스더의 복장이 주는 의미에 대하여 “왕에게 왕후의 신분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도 되고 공

식적인 방문임을 나타내는 뜻도 되며, 권위를 부여함도 되고 화려함과 미모를 돋보이게 하는 복장으로 왕이 쉽게 그녀를 무시할 수 없도록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주석한다[11].

왕이 왕후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웠으므로 손에 든 금 홀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왕후 에스더’ <에스테르 함말레카>라는 표현이 에스더서 내에서 총 14번 나온다(2:22; 5:2, 3, 12; 7:1, 2, 3, 5, 7, 8; 8:1, 7; 9:12, 29, 31). 그중에서 2:22(왕후로 임명된 직후의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5장 이후에 나타난다. 어쩌면 4장 끝부분에서 믿음의 결단 이후부터 이처럼 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옳다면 이 표현은 제국의 왕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요인(要人)인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듯하다. 그리고 왕이 말하였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와스디는 왕이 부를 때 왕 앞에 나가지 않아서 폐위되었던 반면에,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으나 왕 앞에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시작한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오늘 제가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MT에 <야보 함멜레크 베하만 하이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각 단어의 첫 알파벳들을 재 배열하여 ‘여호와’ <요드 헤 바브 헤>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흥미롭기는 하지만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8].

에스더가 말한 대로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석하였다. 4:17에서는 모르드개가 5:5에서는 왕이 에스더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 결단을 하고 난 에스더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는 페르시아 법의 과장됨과 무력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내 일은 분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 X 잠 못 이루는 왕(6:1-9)

그날 밤 잠이 왕으로부터 달아나자 왕이 역대 실록을 낭독하게 하였다. LXX(Septuagint)는 “여호와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빼앗으셨다.”라고 번역하였다. 사실 잠을 못 잘 사람은 에스더나 하만이 있어야 자연스럽다. 다음 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만을 처형해 달라고 부탁하여야 했고, 반면에 하만은 흥분된 마음으로 왕에게 그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모르드개를 처형해 달라고 부탁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왕이 잠을 못 이루면서 내러티브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에 의한 왕의 암살 시도가 모르드개를 통해 발각된 것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개에게 포상이 없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왕이 뜰에 누가 있는지 물었다. 마침 모르드개를 처형하려는 계획을 왕에게 부탁하려고 하만이 와 있었다. 왕이 하만을 불러들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하만은 왕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착각하여 대답했다. 왕복과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왕의 말에 그를 태

워 성읍 광장에 다니게 하면서 왕의 가장 존귀한 신하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외치게 하시라고 조언하였다.

히브리어 구문이 모호하여 모르드개에게 직접 왕관을 씌웠는지 아니면 모르드개가 탄 말이 왕의 말임을 알리기 위해 말의 머리에 왕관을 장식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의 머리 위에 왕관을 둔 것으로 이해한다(ESV, NASB, NIV, NRSV, TNK, 새성경, 쉬운성경, 표준새번역개정; 참고, 6:9, 11)[13].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액세서리들이 충분히 동원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MT의 <레호브 하이르>를 개역개정성경이 4:6에서는 “성읍 광장”으로, 6:9, 11에서는 “성중 거리”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하지만 동일하게 번역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동일한 장소에서 모르드개가 전에 크게 통곡했었으나 이제 존귀하게 되며, 전에 베옷을 입었으나 이제 왕복을 입는 대조를 잘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6:7-9에서 하만의 대답 가운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세 차례나 반복된다. 나아가서 ‘왕’이라는 단어를 여섯 차례 사용한다.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2.5 D2 왕과 하만을 위하여 에스더가 베포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의 죽음(7:1-10)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했다. MT에서는 ‘갸다’<바이야보>라는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로서 마치 왕이 혼자 간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하만에게는 잔치일 수 없을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 왕이 에스더에게 간청과 소원을 물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우맘-박카샤테크 아드-하치 함말쿠트>는 왕의 질문이 세 차례 반복된다(5:3, 6; 7:2). 에스더가 두 번에 걸친 잔치를 베풀면서 왕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이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왕은 에스더가 이제 어떤 소원을 아뢰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비록 세 사람만의 잔치 자리라고 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주변에는 늘 경호원들이나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세 번의 똑같은 약속을 선명하게 들은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었을 것이다. 에스더는 자신의 금식 기도와 민족의 도고기도 덕택에 하늘의 지혜를 얻어 전략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왕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왕이 베푸는 커다란 호의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일 따름이다(참고, 막 6:23).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동생 마시스테스의 딸이자 자신의 자부인 아르타윈테에게 사랑에 빠져 도시, 금, 군대 등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했다[2].

에스더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구하였다. 자신의 민족이 팔려만 가더라도 군이 부탁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것이 왕에게 손해(위기, 걱정)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MT의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에스더의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유다 사람들이 진

멸 당하게 될 사태를 왕에게 아뢰는 것은, 만약 이 사실을 지나치면 필경 왕에게 손해와 염려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에스더는 이 사태가 유다 사람들의 존폐 문제이기보다는 왕의 안위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혜롭게 설득한다. 나아가서 왕의 관심은 오직 왕후 에스더일 뿐 유다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혹시 유다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 왕이 무관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여 말한 것이다.

왕이 그자가 누구냐고 왕후에게 물었다. MT를 직역하면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였다. 그리고 그가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이다. 이는 필사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왕이 몹시 당황해서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1]. 그 대적이 바로 하만이라고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하만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왕이 분노하여 궁전 뜰로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벌을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왕의 분노로 와스디가 폐위되었던 1장의 사건은 여기서 유사하게 하만의 추락을 짐작하게 한다. 동시에 와스디의 폐위가 에스더의 즉위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만의 처형은 모르드개의 지위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게 한다.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소리쳤다. 6:13에서 ‘지혜로운’ 친구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개 앞에서 굴욕 당하기<나팔> 시작했으므로 반드시 패할 것이다<나팔[*2]>.” 조언했던 것처럼, 7:8에서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렸다<나팔>.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는 행동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행동을 구별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왕이 스스로 무슨 일을 판단하는 것이 처음인 듯하다. 궁지에 몰리자 왕도 약삭빠르게 대처할 줄 안다. 어찌 되었건 조서를 하만과 함께 내렸던 왕이 조서를 문제 삼아 하만을 처리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큰일이다. 터무니없이 누명을 뒤집어씌우긴 했지만 유다인을 죽이도록 명령한 조서와는 별개로 하만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른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린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당시 죄수들을 다루는 방식의 하나로 보인다[8]. 그 순간에 왕의 내시 하르보나가 왕에게 보고하기를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개를 처형하려고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라.”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리자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2.6 C2 두 번째 조서와 모르드개의 이인자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8:1-8, 15-17)

그 날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자신의 충신 바가이오스를 통하여 악행자 오로에테스를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수산으로 옮겼다[2]. 에스더는 모르드개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알렸다. 왕이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었다. 하만은 죽었으나 유다 민족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에스더가 눈물로 왕께 간절히 구하며 조서를 고쳐 달라고 호소하였다. 에스더서 내에서 “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난>이 두 번 사용된다(4:8; 8:3).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하라(4:8)고 하자,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하고(8:3) 있다[13]. 그러나 조서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왕은 그들이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도록 허락하였다. 8:8(MT)에서 “너희”<아템>가 맨 앞에 나와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조서를 완전히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모르드개가 관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나오자 수산이 환호하였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의미보다는 유다 사람들을 지지했다는 의미가 적절할 것이다[13].

2.7 A2-B2 부림절 잔치(9:1-32)

12월 13일,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날이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 유다 사람들을 아무도 막지 못하였다. ‘막다’<아마드>의 문자적 의미는 ‘서다’로서 직역하면 ‘아무도 유다 사람 앞에 서지 못하였다.’ 이는 모르드개의 조서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모르드개의 조서(8:11)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도록<아마드>,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서도록 명시되어 있다.

각 도의 모든 관리가 유다 사람들을 후원하였으며 모르드개는 갈수록 세력이 커져서 왕궁의 실권자가 되었다. 그날 수산에서 500명과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죽였으며 각 도에서 75,000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딜라드(Dillard)는 그의 강의에서 하만의 열 아들 이름 앞에 히브리어 <베에트>가 모두 사용되어 배열된 점을 두고 그들이 교수형 당하는 장면을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설명한다[1]. 9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방어하여 대적들과 싸웠지만 ‘대적들의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10절, 15절, 16절). 이에 대하여 김윤희는 유다 민족이 철저히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사울의 불순종을 만회하고 있다고 주석한다[11]. 왕이 에스더에게 또 다른 소원이 있는지 물어보자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며 하루 더 수산에 있는 대적들을 죽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왕이 허락하자 12월 14일에 수산에서 유다 사람들이 대적 300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모르드개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해마다 12월 14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도록 하였다. 이날들은 평안을 얻은 날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복으로 바뀐 날이었으므로 유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며 잔치를 열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은 ‘유익’<누아흐>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했으나(3:8),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부터 ‘평안’<누아흐>을 얻었다(9:22)[13].

유다의 대적인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흥계를 꾸몄으나 악랄한 흥계가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된 것을 기념하며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 부림이라 불렀다. 이날들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게 하였으므로 부림절이 유다 사람들의 후손에게서 대대로 지켜졌다.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 부림절을 확정하였으며 유다 사람들이 전에 자원하여 금식한 것처럼 자원하여 새로운 경축일을 지켰다[11]. 에스더의 명령에 따라 부림절 규정들이 확정되었고 책에 기록되었다.

3. 결론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를 위한 팁 가운데 하나는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는 것이다. 에스더서 내에서 '잔치'라는 단어가 한 실례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히브리어 <미쉬테> 곧 잔치가 구약에 총 46번 나온다. 그중 에스더서에서만 무려 20번이나 나온다. 특히 이 잔치는 주로 두 번씩, 짝(couple)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에스더서에 주요한 잔치가 3묶음(set) 나오는데 모두 2번씩 연달아 묘사된다. 책 전체 10장 중에 1장에 2번, 5-7장에 2번, 그리고 9장에 2번 잔치가 열린다. 그 밖에 2장과 8장에서 각각 1번씩 잔치가 등장한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1장에서 9절에 와스디가 베푼 잔치가 1번 더 나오지만, 이 잔치는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수하지 않은 것이다. 단 한 절에서 그것도 잔치가 있었다는 진술뿐 그 외에 어떤 상세한 묘사도 없기 때문이다. 주요한 세 번의 잔치 묶음들은 배열에도 책의 처음, 중간, 끝에 균형 있게 배열되어 있다. 에스더서를 이끌어 가는 중요 모티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모세오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에스더서에서 처음 알려진 절기 부림절은 9장에 가면 2일간 지키도록 제정된다. 즉 2일 동안 잔치를 연다. 따라서 이 틀을 따라 책이 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주요한 잔치들이 2번씩 연달아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페르시아에서 잔치하면 으레 두 번씩 한다는 정보를 고의로 주는 듯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로기에 가야 만들어진 절기 부림절을 2일간 지키는 의식, 곧 2번의 잔치를 하는 절기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또한 6장(X)은 그 세 쌍의 잔치 묶음 중에 두 번째 묶음의 잔치 문맥 가운데에 있다. 곧 5장과 7장이 하나의 쌍인 두 번의 잔치인데 그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다. 이렇게 해서 6장은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를 드러낸다. 그날 밤 잠을 못 잘 사람은 에스더나 하만이었어야 자연스럽다. 다음 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하만을 처형해 달라고 부탁하여야 했고, 반면에 하만은 흥분된 마음으로 왕에게 그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모르드개를 처형해 달라고 부탁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왕이 잠을 못 이루면서 내러티브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다. 세상은 얼핏 보면 모든 것들이 '우연(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밖에 일어난 일)의 연속'이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결코 우연이 없음을 잘 예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배 생활 중에 흠어져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 세상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 섭리하시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다.

에스더서의 유배 생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에스더서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종교 개혁가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책이라고 천시하고, 심지어는 설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이 이 책에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였다. '섭리'라는 주제를 에스더서의 '잔치' 모티프에 의한 구조가 잘 전달하고 있다.

References

- [1] Karen H. Jobes, *Esther*,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1999), 26-28, 155, 198.
- [2] Herodotus, *Historiae*. §3.84, 89, 127-29; §7.8, 114; §9.108-13.
- [3] Fredric W. Bush, *Ruth, Esther*, WBC (Dallas: Word, 2002), 345, 348-49.
- [4] Edwin M. Yamauchi, *Persia and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96).
- [5] Translated by Eunggyu Park, Hanyeong Lee, Yongseong Cho,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2010), 277, 335-37, 350-52.
- [6] Seongil Hwang, *The Ancient Near East* (Daejeon: Grisim Associates, 2013), 142.
- [7] David M. Howard, Jr,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Chicago: Moody Press, 1993), 320.
- [8] Mervin Breneman, *Ezra, Nehemiah, Esther*.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1), 307, 339-40, 350.
- [9] Joyce G. Baldwin, *Esther: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1984), 63.
- [10]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s*, §11. 200.
- [11] Yunhui Kim, *Esther*, Duranno HOW Commentary 15 (Seoul: Duranno Academy, 2009), 104-7, 139-40, 183-84, 188.
- [12] Elaine Phillips, "Esther,"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 Chronicles ~ Job*, ed. Tremper Longman III & Davi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10), 615, 649.
- [13] Adele Berlin, *Esther*, JPSBC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60, 73, 80-81, 89.